법흥 스님은?

기억력 탁월 '이 시대의 아난'

매일 전각돌며 정성껏 참배



무각사 주지 광민스님은 은사 법흥 스님이 어떤 분이냐는 말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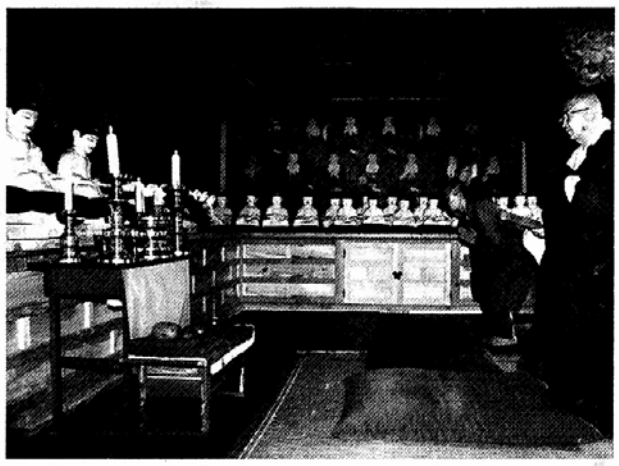
"스님은 50년대 당시로는 드물게 대학교육까지 받은 엘리트이고 속가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또 당시 최고로 존경받던 방장 효봉스님의 상좌이셨기에 얼마든지 높은 지위나 명예직에 욕심을 낼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욕심이 전혀 없으셨고 초지일관 부처님 말씀 안에서 사실려고 하는 원칙을 40여년 지켜오신 분입니다. 처음 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세요. 그렇게 사시는 스님이 답답하고 무능(?)하게 까지 비쳐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류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순수하시고 고지식한 모습에서 '진짜' 스님의 본모습을 보게 됩니다. 존경심이 느껴지지요."

1931년 충북 괴산에서 나신 법흥 스님은 58년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59년 동화사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통도사 해인사 상원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를 지냈고 74~77년 송광사 주지, 84년 송광사 조계총림 유나를 역임했다.

법흥 스님은 특히 기억력이 탁월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난'이라는 별호가 따라다닐 정도다. 스님은 한번 보거나 들은 내용을 웬만 해선 잊는 법이 없다. 70이 넘으신 지금도 조계종 스님들의 이력, 송광사 역사, 경전은 물론 수십년전 돌아가신 노스님의 열반일과 그 전날 무슨 말씀을 했는지 등 줄줄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스님의 비상한 기억력은 물론 타고난 영특함도 있겠지만 늘 공부하는 자세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 스님은 무슨 책을 읽든 좋은 구절이나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따로 노트에다 일일이 적어두고 암기를 해 두신다. 그러한 노트가 벌써 5권이 넘었다.

새벽에 일어나시면 어김없이 대능엄주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대웅전과 각 전각을 독경하면서 일일이 참배하시는 일을 거른 적이 없는 스님은 자자 포살, 전 대중이 합게 발우 공양, TV 없는 사찰 등 승보종찰 송광사만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에도 늘 앞장서고 계시다.



◇청정함과 감사하는 마음, 꿋꿋하게 밀어붙이는 용맹심이야말로 마음을 깨칠수 있는 기본요소라고 하시는 법흥 스님.

고의 노력이 없으면 깨달음을 이루기 어렵다고 봅니다. 나 라는 육신은 다생겁래 익힌 습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이 가득차 있으니 부지런히 닦아야 합니다.

효봉 스님이 그러셨어요, 미혹한 범부가 부처 되기가 그리 쉬우냐고요. 백천간두에서 진일보 하는 마음으로, 뼈를 깍는 고행을 하겠다는 각오로 정진, 또 정진 해도 업장을 녹이기 어려운데 하물며 부처가 되겠다고 발심 출가한 이들이 게으름을 피우며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면 되겠어요? 출가자가 부처님 밥만 축내서야 되겠어요?

나이 40~50이 넘었으면 자운스님처럼 계행을 철저히 지켜 계덕을 입든지, 효봉 스님이나 구산 스님처럼 참선을 잘 해 선정삼매에 들어 정진력을 입든지 옴마니반메훔을 열심히 해 주력하든지, 기도하든지 해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야 어디가서든 존경을 받게 되고 저절로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래야 중노릇을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중노릇 헛한 거예요."

올해 세수 71세인 스님은 허리가 안좋아 좌복에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하신다. 그러니 나이 40 전에 득력(得力)하도록,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고 하신다.

상좌인 지묵스님(법련사 한주)은 스승에 대해 "70이 넘으신 지금도 매우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분"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한다. 언제 뵙더라도 경을 읽고 계시거나 참선, 주력을 하거나 사경을 하시고 있고, 마당을 쓸거나 하신다는 것. 게으름을 피우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 법흥스님이 특징이다.

법흥 스님은 제자들에게 늘 "'부처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서원한 수행자가 절에 와서 게으름 피우면 안된다. 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고 한다. 스님은 눈치나 보고 살살 꾀를 부리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신다. 제자들 뿐 아니라 신도나 마을 사람들도 게으름 피우는 것을 보시면 즉석에서 사정없이 야단을 치신다.

역시 상좌인 광민 스님(광주 무각사 주지)은 "스님은 늘 말씀 하십니다. 불교가 사회를 교화해 밝은 곳으로 이끌어야 하고, 세파에 찌들리고 삼독에 물든 사람들을 청정심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도리어 출가종단이 세파에 시달리고 세속인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니 될 말이냐고 걱정하시지요. 진흙탕 연못을 정화시키는 연꽃처럼 자신은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을 피우면서 동시에 진흙탕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수행력을 지니고 있으려면 청정함을, 본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쉼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 하시지요."

기복불교 반드시 척결

스님이 되어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부귀를 누리더라도 죽을 때는 공부한 만큼만 가지고 가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포교니 주지니 다 소용없다. 공부 잘해서 깨닫는 것이 '중의 첫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수행자의 본분사가 무엇인지, 왜 발심출가했는지, 근본을 잊지말라고 강조하시는 스님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신다.

"인간은 다생으로 쌓인 습이 워낙

> 한번 결심했으면
> 꿋꿋하게 밀고가는
> 용맹심 있어야

두꺼워 남의 눈이 보지 않으면 욕(慾)을 이겨내지 못하니 가능한 대중살이가 좋지요. 또 파계(破戒)는 파기(破器)라고, 가장 수행자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깨진 그릇에는 아무리 물을 퍼부어 봤자 물이 담기지 않는 것처럼 계율을 어기면 결코 성불할 수 없어요."

신도들에게도 따끔하게 말씀하신다.

"영험있다는 부처님만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자성을 닦아야 합니다. 부자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대학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하는 생각만으로 절에 오지 마세요. 성철스님 하시는 얘기가 한국불교 망하는 원인은 우리 절 부처님은 영험 있어, 우리절에 기도하면 아들 낳고 부자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기복 불교 때문이라고 야단치셨어요. 절에서는 목탁치고 받는 돈벌이에만 생각이 있고 신도들은 '해주세요' 하는 욕심으로 기도를 채운다면 한국불교는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님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우선 세가지를 명심하라고 일러주신다.

첫째, 마음을 청정하게, 하늘처럼 넓게 써라.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부처님에 대해 국가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스승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 즉 만 중생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셋째, 용맹심이 중요하다. 한번 결심했으면 꿋꿋하게 밀어붙이는 용맹심이 있어야 무엇을 이루어도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차일피일 미루거나, 남에게 의지하거나, 게으른 사람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 어떤 재가불자들은 생활에 시달리고, 일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데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재가인들도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투철한 신념과 꾸준한 용맹심을 가지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생에 안되니 내생에 다시 비구 몸 받고 부처님 법 만나 성불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기도하신다는 법흥 스님은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 나오는 가르침을 즐겨 붓으로 써 제자들을 비롯 후학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출가본분사를 늘 챙길것을 경책하신다.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에서 벗어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다."

글=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낭림스님



낭림(朗林) 스님은 흔하지 않은 특이한 이름 때문에 처음 만나는 이는 꼭 법명을 되물어 본다. 입에 익지 않으면 발음하는 일도 힘들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의 법명을 잘 외우지 못한다. 스님네들의 법명은 대부분 중복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되어 있기 마련인데, '낭림'이라는 이름은 한국불교인명사전을 검색해도 보이지 않는다. 얼핏 들으면 우습기도 한 그 이름을 가지게 된 인연도 알고 보면 개성이 강한 그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봉암사에서 행자 노릇을 할 때, 어느 날 큰스님께서 방으로 부르시더란다. 뜻밖에도 큰스님은 행자의 이름을 미리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이름을 여러 개 놓고서 마음에 드는 것을 집어보라는 말에 얼른 '낭림'이라고 적힌 종이를 가졌단다. 그 때 큰스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무슨 뜻인 줄은 알고 집었느냐?" 물으시자, 행자의 대답이 오히려 선문답에 가까웠단다. "한문이 쉽잖아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배꼽을 잡고 웃지만 그러한 낭림 스님의 재치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평소에도 이처럼 단순하고 파격적인 성격의

재치있는 말솜씨 웃음보 자극

한번 마음먹은 일 끝까지

일면을 많이 보여준다.

낭림 스님은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때때로 그의 위트는 포복절도할 만큼 순발력을 발휘한다. 끊임없이 말재간을 부려 주위를 즐겁게 하는 것이 유머있는 사람이라면, 위트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폭발력은 위트가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낭림 스님의 위트는 펄펄 살아 있는 선사(禪師)의 활구(活句)처럼 시원하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신도가 찾아와서 그의 피부가 너무 곱다고 칭찬을 하였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앞에 있던 신도는 자신이 무슨 실수라도 한 줄 알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거울 볼 때마다 저도 놀랍니다, 피부가 너무 좋아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 자신도 의외의 그 대답에 한바탕 웃음보를 터트렸다. 이같이 위트는 농담인줄 알아차리는 그 찰나에 상황이 반전되는 것이다. 이런 위트의 논리가 마치 우리 선문(禪門)의 격외(格外) 법문과 닮아 있어서 한번씩 매력이 느껴진다.

낭림 스님은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있다. 지나치면 아집과 독선이 되지만, 때로는 수행자에게 이런 고집은 직립수행의 한 과정으로 나타난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안일과 갈등을 길들이는 자기 통제의 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낭림 스님에게 이런 고집은 집중력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언젠가 눈 치우는 울력을 함께 한 적이 있다. 그 해 겨울은 눈이 자주 내려 눈이 겹겹으로 쌓여 있었다. 눈을 쓸고 나면 바닥은 온통 빙판이라서 미끄러지지 않게 길을 내기가 무척 힘들었다. 삽으로 치우다가 나중에는 곡괭이까지 동원되는 큰 일이 되었는데 나는 힘에 부쳐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는 해질 무렵까지 빙판의 얼음 깨는 그 작업을 쉼 없이 하는 것을 보고, 성격과 고집이 일상의 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번은 삽질을 하다가 삽자루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부러진 부분이 삽에 단단히 박혀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 성격 같으면 그냥 창고에 쳐 박아 두고 말 것인데, 그는 반나절을 그 삽을 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씨름을 하더니 기어코 부러진 삽자루 조각을 떼어내고 마는 것을 보고, 일에 매진하는 적극적인 그의 모습에 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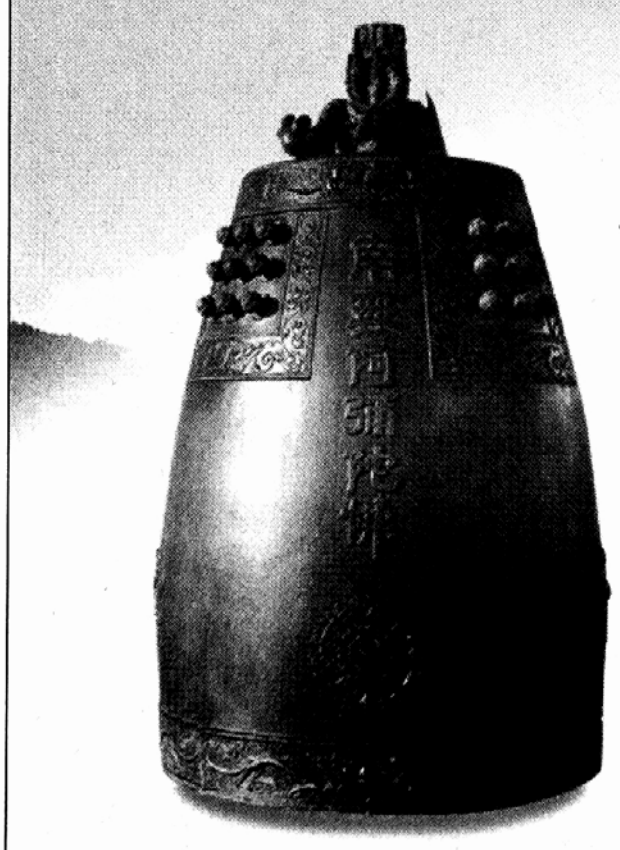


번 놀랐던 적이 있다.

낭림 스님은 힘이 장사에 가깝다. 무거운 짐이나 돌덩이 같은 것도 그의 힘을 빌리면 쉽게 옮겨진다. 해인사 학인 시절 그의 힘은 절정이었다. 하루는 경승용차 한 대가 눈에 미끄러져 차 한 쪽이 개울가로 기울어진 일이 있었다. 그 때 그가 팔을 걷어붙이고 기울어진 차를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을 보고 구경하던 도반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가만히 보면 그는 무조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지혜를 빌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렛대의 원리처럼 온 힘을 쓰지 않고도 자신의 힘을 몇 배 더 발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머리를 알고 힘을 쓴다는 뜻이다. 아닌게 아니라 자신은 힘이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좋다는 스님의 말이 백 번 맞는 것 같다.

스님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만화를 무척 좋아한다. 만화책은 밤을 지샐 정도로 즐겨 읽고 텔레비전의 만화 프로그램에 대해 아이들보다 더 훤하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만화 주인공들을 소재로 아이들과 신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장난도 친다. 가끔 혼자서 만화를 보며 낄낄 거리고 웃는 스님의 모습에서 순수하고 맑은 동심을 느낀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